



정교회주보

제2435호

2023.8.27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판타나사 수도원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미스트라스에 있는 수도원이다. 1428년 9월에 봉헌되었으며,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많은 순례자가 찾는 명소가 되었다. 3개의 통로가 있는 바실리카와 십자형으로 새겨진 펜타 돔을 결합한 비잔틴 양식 성당이다. 잘 보존된 내부 벽화와 아름답고 정교하게 조각된 석조 외관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마태오 제 12 주일

성 비민 수도자
성 파누리오스 순교자
(제3조 • 조과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82
 - 수도자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186
 - 사도경 : 고린토 전 15,1~11 (봉)220
 - 복음경 : 마태오 19,16~26 ... 11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 주는 방법은 굶주린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해 준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어쩌다 한번씩 형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하느님의 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원으로 가는 길' 중에서

2023년 교회년도 시작 메시지

새 로마-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며,
세계 총대주교인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스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와 자비가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존경하는 형제 성직자들과 사
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새해를 맞이하고 찬미와 찬양으로 제35회 자연환경보호의 날을 경축합니다.

우리는 세계 총대주교청의 생태적 이니셔티브가 그리스도교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의회, 정치, 시민 사회, 과학, 환경 운동, 청소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태 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로서 국제적 인식과 참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생태 문제와 사회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즉 자연환경의 파괴가 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의 결합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의 온전함을 보장하고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호에 대해 동시에 관심을 가질 때에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권의 "생태적 확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개인이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연대적 권리 외에도 환경

을 위한 전제 조건의 확보를 의미하는 "4세대"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인권을 위한 투쟁은, 기후 변화, 식수, 비옥한 토양, 깨끗한 공기의 부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 파괴'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생태 위기의 영향은 무엇보다도 인권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끔찍한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모든 전쟁 행위는 피조물에 대한 전쟁이기도 하며 자연 환경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폭격으로 인한 대기, 수질 및 토양의 오염, 핵전쟁으로 인한 대학살의 위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위험한 방사능 방출, 폭격당한 건물에서 나오는 발암성 먼지, 산림 파괴 및 경작 가능한 농지의 고갈,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국민과 생태계가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입었고 계속 고통받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다시 외칩니다.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 모든 도전에 직면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는,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삶에서 부차적인 행동이 아니라 본질적인 표현과 실현이 되어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세상에서 우



리의 선한 증거의 모든 형태와 차원에 있는 거룩한 성찬예배의 확장으로 피조물의 온전함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생태 신학의 선구자이신 페르가몬의 고(故) 요한 대주교의 귀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위대한 공헌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는 현대 환경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응답을 제시함에 있어서, 성체성혈 성사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력의 신년 축일에 대한 총대주교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성한 성찬예배에서 자연 세계와 물질세계와 모든 감각은 나뉘지 않고 일치하여 참여합니다. 주관적 실재와 객관적 실재 사이에는 대립이 없으며, 그것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인간 이성의 정

복적 태도도 없습니다. 세상은 대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에게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되고 공유되는 것입니다. 성체성혈을 영하는 것은, 하느님과 다른 인간들과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고, 우리의 자연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단순히 물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수반되는 신성함, 이 관계에 스며드는 신성한 전율은 기교와는 전혀 반대이며, 우리의 생태적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찬예배는 정교회가 현대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과 자녀 여러분, 축복된 교회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1일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바르톨로메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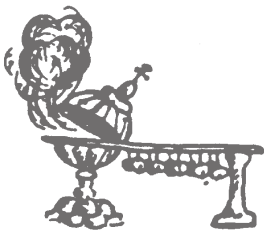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 축일을 축하합니다

8월 30일 축일을 맞이하는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셔서 주님의 양떼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8월 29일(화)
세례자 요한 참수 기념일
 - * 8월 30일(수)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 * 9월 1일(금)
교회 년도 시작
-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소식

■ 교회력 새해 시작

9월 1일은 우리 교회의 교회력으로 새해의 첫날입니다. 이날을 기해서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에서도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가 집전한 특별 성찬예배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교회년도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2~3면에 게재된 세계 총대주교의 교회년도 시작 메시지에서 언급한 대로 생태계를 올바르게 보전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인천 성당 세례 성사

지난 8월 13일(주일), 구세주 변모 축일 종료일을 맞아 4명의 예비자가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례자 : 김도운 나타나엘, 유예진 마리아,
김민수 바르나바, 신재인 그레고리오스

놀라운 관용

성인의 가르침

교회의 전승은 야고보 사도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전해준다. 어느 날 복음서 저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할 장소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를 밀고했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사도는 그를 불러 세운 후에 그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형제여, 평안하시게나.”

그는 사도의 놀라운 관용에 경탄하며 열광적으로 소리쳤다.

“나도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한 뒤에 야고보 사도와 함께 참수를 당했다.

